

Style 1 조선일보

NOVEMBER
2019 vol.197



GENIUS
WORLD TOUR
19—20

MONCLER.COM







BVLGARI
ROMA



34



14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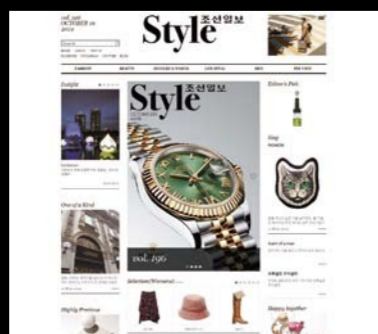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협업해 여러 가지 시선으로 해석한 몽클레르를 소개하는 몽클레르 자.아스 (Moncler Genius). 새로운 비즈니스 시대를 제시하는 창조적인 프로젝트로 매년 흥미로운 작품을 공개해왔다. 이번 시즌에는 '월드 투어'라는 콘셉트를 도입했는데, 각기 다른 컬렉션이 가진 독특한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기획한 특별한 컬렉션을 선보인다. 문의 02-514-0900



10

- 14 **BOSCO SODI** 멕시코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았지만 북미, 중남미, 유럽 대륙에 걸쳐 네 군데에 작업실을 두고 자구전을 누비는 아티스트 보스코 소디(Bosco Sodi). 그는 '작업적 소명 의식'이나 '성공을 겨냥해 서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영혼과 정신을 보듬기 위한 치유책으로 미술 세계에 입문했다.
- 16 **HIDE AND SEEK** 화려한 뱅글처럼 보이지만 정체는 시계. 손목 위의 화룡점정, 주얼 워치 & 시크릿 워치.
- 17 **THE STORY** 알렉산더 맥퀸이 이번 시즌 새로운 백을 선보였다.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고 나눈다는 콘셉트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한 스토리 백이 그 주인공.
- 18 **CASHMERE THE ORIGIN OF A SECRET** 이탈리아 브랜드 로피아나(Loro Piana)는 '오스카상'에 빛나는 프랑스의 영화감독 루크 자케(Luc Jacquet)와 함께 머니맨 패브릭 여장을 세 편의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담아내기로 했다. 그 첫 작품으로 몽골에서 촬영한 <카시미어-비밀의 기원>이 최근 상하이의 문화 예술 공간 MIFA 1862에서 공개됐다.
- 20 **COVER GIRL** 빅 하우스들의 2019 베스트 코트 셀렉션.
- 28 **THE COLOR OF JOY** 비버드한 컬러 팔레트로 시선을 끄는 2019 F/W 시즌 액세서리.
- 29 **SHINE ON ME** 각기 다른 색과 모양으로 빛나는 주얼 장식 액세서리의 낭만적 아름다움.
- 30 **FREEDOM OF CHOICE** 지난 5월 28일 로마에서 열린 구찌의 2020 크루즈 컬렉션은 여전히 강렬하고, 철학적이며, 아름다웠다.
- 32 **AMAZING GOLDEN OASIS** 숨이 멎을 듯 장엄한 사막의 하늘과 신비로운 곡선, 태양 빛을 머금은 바위와 대지, 강하고 아름다운 아생 꽃과 식물, 울해 파이프의 하이 주얼리 컬렉션, 골든 오아시스 사막의 황혼에서 새벽에 이르는 시간대에 드러나는 선명한 빛과 강렬한 색채를 구현했다.
- 34 **JOYFUL & BEAUTIFUL** 건축학자들은 도시를 가리켜 변화를 통해 성장하는 '가대한 인공물'이라고 얘기한다. 시간과 더불어 성장한 건축과 공학의 합작 인공물이자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는 얘기에 다를 바 없다. 사막 위에 꽃피운 라스베이거스는 그 변화의 속도와 폭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도시가 아닐까 싶다.
- 36 **LIP SERVICE** 하늘 아래 같은 컬러는 없다. 여성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피치·레드·핑크·오렌지 컬러 중에서도 이 계절에 더 잘 어울리는 살짝 깊은 가을 컬러 립스틱.
- 37 **BEAUTY INNOVATION** 대세는 홈케어. 얼굴뿐 아니라 두피, 목 주름까지 영역 확장에 나선 뷰티 디바이스 9선.
- 38 **EDITOR'S PICK** 보습과 재생 효과, 편안한 향으로 자친 피부와 마음을 달래줄 환절기 뷰티 아이템.

Style 조선일보 Issue.197 November 2019



stylechosun.com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 정와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이혜미 hmlee0909@chosun.com
 이주이 juyi.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장현
 광고·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ih5567@chosun.com 분해·재판 | 라온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일로 발행됩니다.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리서치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Cape Cod
Time beyond time.



classic Selection

유행을 타지 않는 멋과 기능성을 입증해온 클래식 아이템은 공간의 격을 높여준다.

영국 7번의 장인들이 예술 작품과 대량 생산의 경계에서 소량 제작해 판매하는 쿠션 커버 192만원 **마인하트 by 린베뉴.**

고요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새모형 오브제 가격 미정 **미지스 by 짐볼랑.**

가사와 향기에 두루 어울리는 이브는 현대인의 필수품이며 양재아 가격 미정 **매종 다다.**

진행 박경신(2월 에디션) 에디션 **아름피**

뛰어난 탈취 효과를 갖춘 파퓰 성경. 20개입 3만2천원 **볼리 1803.**

특수 금속을 주름처럼 정교하게 구부려 인공위성을 표현한 새틀라이트 팬던트 램프 가격 미정 **구비 by 이노에사.**

2019년 한정 판매하는 애뉴얼 에디션 엔젤 오너먼트 16만9천원 **스워로브스키.**

프랑스 디자이너 토마스 바르데스가 디자인한 크리스탈 탁자 코르크 가격 미정 **바카라.**

고혹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파우퍼의 스탠드 램프 가격 미정 **까사나 by 크리에이티브랩.**

장교에게 조각한 투명 크리스탈 스탠드에 패턴 소자의 뛰어난 빛을 갖고 코르크를 블레이드를 배치한 울추로 베를 시유 램프 가격 미정 **바카라.**

대리석과 메탈을 접목해 독특한 실루엣으로 디자인한 블랙 마블 커피 테이블 가격 미정 **보로 by 두오모.**

집든 고양이가 포근한 느낌을 선사하는 도자기 오브제 가격 미정 **포르나세티.**

작은 원형 접시 모양의 인센스 홀더. 빈티지 스타일의 페브릭에서 영감을 얻은 플로럴 패턴과 1970년대 아카이브에서 차용한 별 모양 장식 이 아름답다. 27만원 **구피.**

유연한 곡선과 핑크색 스탠드가 로맨틱한 분위기를 선사하는 파리 엔피노. 컬러 섀시 컬러 홀더 가격 미정 **매종 다다.**

엔리코 브로디 소제의 동근 프레임이 돋보이는 라다치오 월 미러 1백만원 **구비 by 에일러스.**

린베뉴 070-7529-9342 **볼리 1803** 1544-5114 **짐볼랑** 070-8842-0835 **스워로브스키** 02-1661-9060 **이노에사** 02-749-2213 **매종 다다** +86 (0)21-6267-0060 **크리에이티브랩** 02-516-1743 **에르메스** 02-542-6622 **광주요** 02-741-4801 **에일러스** 02-6925-6866 **두오모** 02-516-3022 **포르나세티** +39 02 8416 1374 **바카라** 02-3479-1812 **구피** 1577-1921

블루 그레이 톤의 벨벳 커버와 선명한 레드 프레임을 매치한 2인용 소파 가격 미정 **까사나 by 크리에이티브랩.**



PIAGET



LIMELIGHT GALA

Piaget.kr
+82 (0)2 3479 18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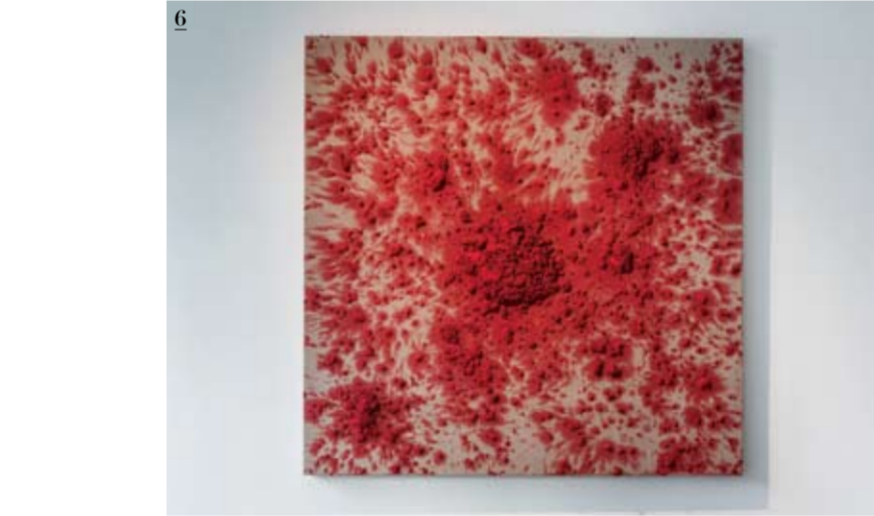
Interview with _
Bosco Sodi

멕시코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았지만 북미, 중남미, 유럽 대륙에 걸쳐 네 군데에 작업실을 두고 지구촌을 누비는 아티스트 보스코 소디(Bosco Sodi). 그는 '직업적 소명 의식'이나 '성공'을 겨냥해서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영혼과 정신을 보듬기 위한 치유책으로 미술 세계에 입문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일종의 명상 같은 행위라고. 그래서 그에게는 '과정'이 중요하다. 타고난 색채 감각 덕분에 아닐까 싶은 출중한 색의 스펙트럼을 구사하고, 캔버스에서 뛰노는 듯한 원초적인 생명력을 불어넣는 텍스처의 조화는 그 과정의 결과물도 충분히 의미 있게 만들었지만 말이다. 진지하고 강렬하면서도, 치유의 에너지를 느끼게 하는 작품 세계만큼이나 인간으로서의 매력도 넘치는 코즈모폴리턴 작가 보스코 소디. 한국에서의 첫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 부산에서 그를 만났다.

지구 여행을 떠나는 이들은 낯선 풍경이나 공간, 사람을 대하는 경험이 주는 설렘이 좋다고 말한다. 그 낯 설이 조금은 익숙하게 다가오는 듯한 기분이 들면 어쩐지 뿌듯한 경험치가 쌓였다는 우쭐함이 들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는 그 '낯설'을 다분히 내 식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재단해버리는 실수를 무의 식적으로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낯선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일종의 폭력성이 반영된다는 비판은 늘 있어왔다. 어쩌면 '무지보다도 어느 정도 알 것 같아'라는 식의 어설플 소회력이 더 문제일 수 있는 이유다. 꼭 그레서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예술 작품을 접할 때도 아무런 배경지식 없이 '느낌' 가는 대로 하는 감상이 더 좋다. 타지의 공간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찰나의 순간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마음이 가는 작품이 있기 마련인데, 일단은 어린이처럼 되도록 순수하게 감상하다가 나중에 그 실체를 차차 알 아기는 편이 재미도, 의미도 있지 않나 싶다. 처음 호감이 쌓여가다가 언젠가 그 작품의 창조자를 만나 대 화를 나눌 수 있다면, 그런 상당한 행운일 테고 말이다. 보스코 소디(Bosco Sodi)는 바로 그런 운이 작용 해 만나게 된 아티스트다. 홍콩의 한 갤러리에서 접한 그의 작품은 짧은 순간이었음에도 눈길을 잡아끌었다. 처음 시선을 두게 된 작품은 꽤 강렬한 단색조의 추상회화였는데, 원래 그림에 있어서는 빨강을 그다 지 선호하지 않는 취향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는 흔치 않은 '레드'였다. 색상만큼이나 관성의 촉 수를 절로 뻗치게 만든 요소는 특유의 질감이었다. 캔버스 위로 살짝 솟아오른 몽글몽글한 덩어리들은 자 신만의 소유주를 수줍은 듯, 하지만 격렬하게 담아내고 있었는데, 뭔가 원시적인 생명력을 분출하는 그의 회화는 분명 그동안 봐오던 단색화와 달랐다. 어떤 평론가는 보스코 소디를 기리켜 '화가라기보다는 '물감 의 조각가'(a sculptor of paint)'라고 불려야 할 것 같다고 했는데, 그만큼 색조도, 질감도 강한 인상을 주 지만 서로를 부담스럽게 만들기도 하는 한 품처럼 잘 어우러진다. 어쨌거나 색과 텍스처의 앙상블이 지어 내는 특유의 감성과 에너지는 '작가'를 궁금하게 만들었다.

한국에서의 첫 개인전, 부산 땅을 밟은 '코즈모폴리턴'

그는 멕시코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뉴욕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작가였다. 하지만 뉴욕뿐 아니라 그의 고향 멕시코시티, 여행자들의 천국으로 일컬어지는 멕시코의 또 다른 도시 오악사카(Oaxaca), 그리고 바



르셀로나에도 작업실을 두고, 지구촌 곳곳에서 열리는 전시를 위해 '발품'이나 팔 수밖에 없는 동선을 지닌 작가였다. 1970년생으로 한국 나이로는 이제 막 50대에 접어든 세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하기에, 때때로 여행길에 가족을 동반하기도 한다. 홍콩에 이어 지난봄 우연히 그의 작품 한 점을 부산 조현화랑에서도 접 했는데, 바로 그 공간에서 올가을 전시가 열리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보스코 소디가 한국에서 갖는 첫 개인전. 먼 길을 온 그를 만나러 부산으로 내려갔다.

조현화랑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의 개인전(10월 10일~12월 8일)에서는 대형 흑백 회화가 주로 전시되고 있다. 컬러풀한 작품은 앙증맞은 캔버스 크기의 소품만 걸려 있을 뿐이다. 무채색이 주를 이루지만 특유의 질감이 뽐어내는 강렬함은 여전하다. 특히 바다에 여기저기 놓인, 진흙을 구워 동그랗게 빚은 '플레이 큐브' 작품들과의 조화가 공간에 무게감과 생동감을 동시에 불어넣는 듯하다. 물론 그는 색의 스펙트럼이 넓은 작가지만, 알고 보니 부산에서의 '블랙 & 화이트' 전시에는 좀 더 개인적인 이유가 반영돼 있었다. "수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기도 하고, 인간의 생사, 육체 등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됐죠. 인간의 삶에 흑과 백이 상징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 것은 역시 색과 텍스처의 조합. 특히 안료와 톱밥, 아교, 물을 걸쭉하게 섞어 만드는 재료에서 비롯되는 특유의 질감은 어떻게 탄생한 것일까? "저는 처음부터 색과 텍스처 모두에 무게를 두고 싶었어요. 대개 질감을 중시하면 무채색 등 튀지 않는 색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고, 색채주의자는 질감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편이잖아요. 돌을 한데 녹이는 법을 고민하던 차에 조르주 브라크 전시를 보러 갔다가 '영감을 얻었어요.' 그의 설명인즉, 브라크를 좋아하는 어머니를 위해 도록을 샀는데, 책 말미에 톱밥을 유화에 넣어 약간의 질감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에 '아, 이거다' 싶었다는 것. "유화물감에 톱밥을 넣어보니 실제로 질감을 좀 불어넣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실수로 물감 통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통째로 바닥에 쏟아졌는데, 일단 차우지 않고 놔뒀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약간의 금(crack)이 간 상태가 됐는데, 그 모습이 정말로 아름다웠죠."

치유를 위한 '테라피'로 시작한 그림, 글로벌 아티스트로 성장하게 하다

20년 전 일을 회상하면서 살짝 미소를 지어 보던 그는 이 작은 사건을 계기로 '실험'을 계속하다가 현재 쓰는 재료의 구성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색상의 경우에는 여행을 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샘플' 안료를 구매하고는 마음 가는 대로 활용한다고. 예컨대 필자가 보고 반한 '레드'는 인도에서 발견한 안료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하지만 그와 똑같은 '인디안 레드'로 이루어진 작품은 이제 구하기 힘들지도 모르겠다. 5년 전쯤 뉴욕에 무시무시한 태풍이 몰아쳤을 때 보스코 소디의 스튜디오도 물에 흠뻑 잠겼는데, 이때 인도에서 1톤이나 사 온 '빨강' 안료도 휩쓸리는 운명에 처했던 것이다. 그는 휴대폰으로 당시 침수된 스튜디오의 참상을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다. 온통 붉은 물결로 뒤덮인 실내는 그야말로 작은 '홍해' 같았는데, "이 정도면 거의 장소 특정적 작품을 만들게 한다"라고 위로 섞인 농담을 건네자 덩달아 웃으면서 "무슨 공언 같지 않냐"라고 맞장구쳤다. 그래도 덕분에 그의 작품을 구입하는 컬렉터들의 진정성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당시 주문을 마친 회화 16점이 망가졌는데(그중 3점은 영국의 슈퍼스타 작가인 데이미언 허스트(Damien Hirst)가 주문한 작품이었다고 한다), 사실 마치 '의식(ritual)'과도 같은 과정(process) 속에서 완성되는 작품 성격상 절대로 똑같은 그림을 다시 그릴 수는 없었다. 그런데 모두들 이해시킬 것 없는 작품을 완성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한 것. "작품만이 아니라 작업실에 있는 도구, 재료 등도 다 못쓰게 된 셈이라 한동안은 작업도 할 수 없었는데, 다들 흔쾌히 관찮다고 이해심을 보여주더라고요."

사실 보스코 소디는 문화 예술계 친구는 많지만, 정식으로 미술을 전공한 적이 없다. 멕시코에서 내로라 하는 지식인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주주의력 결핍, 난독증 같은 문제 때문에 어머니의 권유로 미술 수업을 듣는 게 전부다. 치유책으로 삼은 미술이기에 그는 화학공학자인 부친의 길을 따라가보려고도 하고, 국제관계학을 배우보기도 했지만, 그 어떤 공부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에 20대 초반 결혼을 하고 파리에 1년 정도 체류한 적이 있는데, 이때 아티스트의 길로 들어서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늘 그렇듯 그림을 그렸는데, 표구를 하려고 액자 가게에 맡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찾으려고 하니 상점 직원이 당시 그림을 전부 사고 싶어 하는 손님이 있다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평생 '직업'으로 삼을 만한 길로 생각하게 됐죠." 그리하여 그는 당시 예술인들이 많이 몰려들었던 바르셀로나로 향했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작가 수업을 하게 됐다. 어느 정도 인지도를 쌓고 10년이 지나 뉴욕으로 터전을 옮겼는데, 이는 작가 커리어로 볼 때 '신의' 한 수였다. 뉴욕으로 옮긴 뒤 1년쯤 지나 브롱크스 뮤지엄에서 <판게아(Pangea)>라는 전시를 개최했는데, 이를 계기로 '리브풀'이 쏟아지는 작가로 거듭나게 된 것.

동시대 '동료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플랫폼을 세우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성공에 그저 도취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엄연한 현실이지만,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미술 시장의 논리에 따라 소위 '뽀함'이 숭구된 데 대해 편지 않은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그 일환으로 돌려주기 로 마음먹었다. 아니, 그의 표현에 따르면 그것은 '도덕적 의무' 같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그래서 5년 전쯤 오악사카에 커다란 아트 센터를 설립했다. 설계는 일본의 건축 거장 안도 다다오가 맡았는데, 특유의 노출 콘크리트 벽과 멕시코 해안 지역에 걸맞는 토속적인 분위기가 어우러진 카사 와비(Casa Wabi)가 탄생했다. 그의 작업장이자 아티스트를 위한 레지던스 프로그램과 아이들을 위한 창조적인 놀이터로도 쓰이는 커다란 복합 공간이다. 스스로 '성공했다'는 표현을 쓰기도 겸연쩍다는 그는 카사 와비에 대해서만큼은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플랫폼이라고 은근히 자랑을 한다. 이곳에 머무는 이들은 창조적 자유를 보장받지만, 반드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워크숍에 참가해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지역 주민들은 미술 같은 건 전혀 모르는 저임금 노동자들. "제가 받은 축복을 돌려주는 방법을 고민해봤을 때, 우선 떠오르는 건 내 조국, 내 고향 사람들이었고, 그다음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동료' 아티스트들이었어요." 자신이 여러모로 '행운'이었음을 잘 아는 그의 '축복 나누기'가 부디 유행처럼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글 곽성연**

hide and Seek

화려한 뱅글처럼 보이지만 정체는 시계. 손목 위의 화룡점정, 주얼 워치 & 시크릿 워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시계 방향) **파아제 라일라이트 시드릿 워치**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3백13개의 다이아몬드와 2개의 오픈스를 세팅했다. 블랙 세린 스트랩을 매치해 카바를 담은 화려한 브레이슬릿 같다. 케이스 지름 30mm, 38피스와 출사하는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6천원대. 문의 02-540-2297 **블가리 세르펜티 마스터워치 시드릿 워치** 손목 곡선을 따라 움직이도록 고안된 뱅글 브레이슬릿의 뱀 머리를 살짝 들어 올리면 미니 시야의 시계가 보인다. 케이스 지름 36mm, 18K 로즈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했고, 에미스트로 밤의 눈을 표현했다. 7천 원대. 문의 02-2056-0170 **샤넬 화인 주얼리 플립 드 샤넬 주얼리 워치** 플립 드 샤넬 깃털 모티브를 적용했다. 18K 화이트 골드에 총 1,247개의 96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자개 다이얼 워치. 블랙 세린 스트랩으로 마무리했다. 5천원대. 문의 080-200-2700 **그라브 베타블라이 워치** 작은 나비를 들어 올리면 미니 시야의 시계가 보인다고 한다. 나비 카바는 총 2,437개의 다이아몬드와 핑크 사파이어로 장식했고, 화이트 컬러 스트랩을 매치해 드레스 워치로도 손색이 없다. 6천원대. 문의 02-6905-3330 **카르띠에 로렌트 드 카르띠에 마스터리 무브먼트 워치** 헨츠는 무브먼트와 직접 연결되지 않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장식된 2개의 디스크에 고정된다. 무브먼트가 작동하면 2개의 디스크 중 하나는 빛의 속도로, 다른 하나는 시의 속도로 회전하며 헨츠를 움직이는 시스템. 화이트 골드 케이스는 지름 36mm, 베젤에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했고, 악자각 스트랩을 매치했다. 1억원대. 문의 1566-7277 **부세인 비행 주얼리 워치** 뱀의 머리를 상징하는 드롭 모티브와 특유의 골드 비즈 다이얼이 조화를 이룬다. 라피스 라줄리 다이얼에는 4개의 다이아몬드로 인테스를 대신했고, 블루 컬러 카프 스트랩을 매치했다. 스트랩 길이는 맞춤 가능하다. 1천원대. 문의 02-772-3508 **스피드 다이아몬드 워치** 오프라와 알라카이트, 청금석을 조합해 빛나는 다이얼을 완성했다. 베젤을 장식한 다이아몬드는 화려한 프롬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고급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더욱 화려하다. 자체 제작한 무브먼트를 장착했으며, 케이스 지름은 30mm이다. 1억원대. 문의 02-6905-3330 **다이아나 미모사 워치** 18K 화이트 골드에 총 10,297개의 사파이어와 7,017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화려한 주얼리 워치로 드레스에 착용해도 좋다. 1억원대. 문의 02-3279-9074 **에르메스 메도르 로즈 골드** 사냥개 목걸이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으로 클루드 파피코와 블라르 파피코 스타드를 장식해 카바를 담은 가죽과 메탈을 매치한 뱅글 같다. 시계 다이얼은 가로세로 23mm의 정사각형. 로즈 골드 파피코 스타드 카바에는 총 60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3015-3283 **에디터 장리온**

the Story

알렉산더 맥퀸이 이번 시즌 새로운 백을 선보였다.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고 나눈다는 콘셉트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한 스토리 백이 그 주인공.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2020 S/S 시즌 컬렉션에서 알렉산더 맥퀸의 수장 사라 버튼은 '이야기 (story)'에 집중했다. 그녀는 "컬렉션에서 선보인 42벌의 의상 모두 나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만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의상을 제작하는 과정을 컬렉션에 녹였다"라고 전했다. 의상뿐 아니라 룩을 완성하는 백과 슈즈, 액세서리도 그렇다. 컬렉션을 통해 새롭게 선보인 스토리 백(The Story Bag)에도 브랜드가 오랜 시간 이어온 가치관을 고스란히 담았다. 부드러운 카프 스किन으로 제작한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실루엣에 브랜드의 시그니처 핸들을 모던하게 재해석해 가방 전반에 더했다. 인기는 가장 컬러와 대조되는 색상을 적용해 브랜드 특유의 대담한 매력을 엿볼 수 있다. 탈착 가능한 스트랩과 같이 조절 가능한 톱 핸들로 크로스 보디 백과 톱 핸들 백, 숄더백, 클러치 백으로 다채롭게 연출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멸종 위기에 처한 꽃에서 영감을 얻은 패턴과 자수, 레이스를 적용한 룩을 컬렉션에서 선보인 것처럼, 가방 역시 오카드 핑크와 라스트 레드 등 자연에서 비롯된 아름다운 색감으로 팔레트를 꾸렸다. 2백78만원. 문의 02-2118-6171 **에디터 어유이**

● sponsored by Alexander McQueen

릭 자케-로로피아나 다큐 필름 프로젝트_1부

Cashmere the origin of a secret

시련은 아무에게나 꽃이 되지 않는다고 했던가. 때때로 궁극의 아름다움을 품은 자연의 선물은 가장 까다로운 환경을 극복해야만 얻을 수 있다. 페브리크의 세계에서조차 마찬가지다. 인류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소재로 꼽히는 베이비 캐시미어, 비쿠냐, 더 기프트 오브 킹스® 등을 내세우는 이탈리아 브랜드 로로피아나(Loro Piana)는 지구촌에서 가장 척박한 환경이나 극한의 기후 조건 속에서도 6대에 걸쳐 내려오는 고유의 노하우와 열정으로 '패브리크 로드'를 진화시켜왔다. 인간과 동물의 '공생'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진귀한 소재의 기원을 진정성 있게 짚어보고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 브랜드는 3년 장기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오스카상'에 빛나는 프랑스의 영화감독 릭 자케(Luc Jacquet)와 함께하는 머나먼 페브리크 여정을 세 편의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담아내기로 한 것. 그 첫 작품으로 몽골에서 촬영한 <캐시미어-비밀의 기원>이 최근 상하이의 문화 예술 공간 MIFA 1862에서 공개됐다.



이탈리아 영화감독 페브리크 로로피아나(Loro Piana)는 6세대에 걸쳐 최상의 품질을 지닌 특별한 섬유를 찾아 세계 각지로 먼 여정을 꾸려왔다. 그중 브랜드를 대표하는 섬유 중 하나인 캐시미어를 얻는 염소가 사는 내몽골 지역. 사진: Guilo Di Sturco



* 캐시미어-비밀의 기원(로로피아나 웹사이트(www.loropiana.com)에서 볼 수 있다.)

사진:재규르 로로피아나

'몽골'이라고 하면 고원 지대에 끝이 보이지 않을 듯 광활하게 펼쳐진 초원, 그 드넓고 목마른 대지 위에 모질게 휘몰아치는 바람, 바위마저 쪼개진다는 혹독한 기후를 빼놓고 얘기하기 힘들다. 대표적인 지역이 몽골어로 '사막'이라는 뜻을 지녔다는 고비(Gobi) 사막. 그래도 낭만을 읊조리는 여행자들에게는 이 적막하기 그지없는 사막의 별빛 가득한 밤하늘이 지친 심신을 토닥여주는 기억으로 남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낭만적인 풍경보다 더 진한 감동을 주는 존재가 있다. 아름답지만 척박한 몽골의 초원과 사막을 삶의 무대로 삼은 채 살아가는 유목민, 그리고 그들의 벗이자 동반자인 가축이다. 특히 고비 사막 인근에 위치한 내몽골의 아라산(Alashan) 지역은 낮밤과 여름·겨울의 온도 차가 극심한 곳인데(영상 40℃~영하 40℃), 털이 하얀 희귀한 염소 무리와 그들이 '공생'하는 목동들의 터전이기도 하다. 카프라 히르쿠스(Capra Hircus)라고 불리는 이 염소는 계절에 따라 유목 생활을 하는 목동만큼이나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줄 안다. 작은 체구를 감싸는 바깥쪽은 비와 햇빛을 견뎌내도록 다소 거친 털로 덮여 있지만, 그 안에는 놀랍도록 부드럽고 단열 효과가 뛰어난 속털이 숨겨져 있다. 바로 캐시미어다. 특히 생후 3~12개월 된 히르쿠스 새끼 염소의 곱고 가벼운 속털을 섬세한 빗질을 통해 채취하는 '베이비 캐시미어'는 일생에 단 한 번, 1마리당 30g 정도만 나온다. 하지만 무리하게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육 방식의 등장으로 몽골 염소의 생태계는 위협에 빠지게 됐다. 이에 로로피아나(Loro Piana)는 오래된 전통을 고수하는 농장주들과의 협업을 다지면서 '최상의 소재' 지키기에 나섰다. 다큐멘터리를 찍는 영화감독이라면 당연히 구미가 당길 만한 촬영지이자 이야기 소재가 아닐 수 없다. 바로 남극을 배경으로 한 다큐멘터리 <행진, 위대한 모험>(2005)으로 아카데미상을 받은 릭 자케(Luc Jacquet)의 이야기다.

공존 속에 피어난 캐시미어의 연금술, 몽골의 기적
"일단 촬영지 자체가 아주 흥미로웠던 것도 맞아요. 몽골에서, 그리고 (다음 행선지인) 페루와 뉴질랜드에서 촬영한다



1 아카데미상을 받은 프랑스 영화감독 릭 자케(Luc Jacquet)는 로로피아나를 대표하는 최고급 섬유인 캐시미어, 비쿠냐, 더 기프트 오브 킹스®의 기원을 각각 탐사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3부작을 선보인다. 3년에 걸쳐 전개되는 이 프로젝트의 첫 작품으로 몽골에서 촬영한 <캐시미어-비밀의 기원(Cashmere-The Origin of a Secret)>이 지난 10월 18일 상하이의 문화 예술 공간 MIFA 1862에서 첫 상영회를 통해 공개됐다. 2 상하이를 찾은 릭 자케 감독, 남극을 배경으로 한 다큐멘터리 <행진, 위대한 모험>(2005)으로 아카데미상을 받은 그는 인간과 동물, 환경의 상한 공생 관계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세계를 누비면서 작품 활동을 해왔다. 3 릭 자케 감독과 로로피아나 의 다큐멘터리 필름 프로젝트가 처음 공개된 상하이 MIFA 1862의 외관. 4 다큐멘터리 필름 <캐시미어-비밀의 기원> 상영회가 열린 상하이 MIFA 1862에는 몽골 고비 사막 등에서 촬영한 영화의 장면들을 별도로 전시하는 공간도 마련됐다. 5 다큐 필름 상영회가 열린 상하이 행사에서는 The Loro Piana Cashmere of the Year Award(올해의 로로피아나 캐시미어 어워드) 수상자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염소를 사육하고 로로피아나 최고급 캐시미어를 채취하는 목동들을 지원하고 세상에 알리기 위한 상으로, 2015년 처음 제정됐다.



는 건 영화감독으로서 정말이지 매력적인 기회죠." 지난 10월 중순 상하이의 문화 예술 공간 MIFA 1862에서 <캐시미어-비밀의 기원> 상영회가 개최된 다음 날 아침, 시내에 있는 한 호텔의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릭 자케 감독. 오랫동안 몽골의 자연환경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작업을 꿈꿔왔다는 그는 "진귀한 섬유의 역사를 탐색할 수 있다는 건 영감의 바다에 빠져 그 감동을 나누는 일"이라고 미소 지으면서 "이렇듯 배급사 제작사에 대한 부담감 없이 자유롭게 느낀 대로 해보려는 식으로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기회는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특히 염소를 키우는 지역 목동들 곁에서 관찰하고 심지어 그들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행운이었다고 강조했다. "촬영 기간 동안 그들과 늘 같이하면서 우리 사이의 연결 고리가 꽤 단단해졌어요. 재미난 에피소드도 있는데, 촬영이 끝난 다음에 저는 그분들로부터 살아 있는 낙타를 받았어요. 선물 같은 거였죠." 그는 비록 프랑스로 낙타를 데려올 수는 없지만, 그들이 '선물을 건넸다는 사실 자체가 뭔가 특별한 유대를 쌓았다는 증거가 아니겠'하면서 이번 여정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로 꼽았다. 몽골 촬영에 대한 릭 자케 감독의 애정은 스크린에서도 잘 드러났다. <캐시미어-비밀의 기원>을 수놓은 장면마다 잘 소들은 물론이고 그들을 현신적으로 보살피는 목동 가족들로 이뤄진 일종의 '공동체'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여실히 느껴졌다.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며 자연경관과 더불어 나름 생동감 넘치는 캐릭터들의 앙상을 덕분에 별도의 내레이션 없이도 지루할 새 없이 20분이 지나간다.

3년에 걸친 3부작 다큐멘터리 대장정
영상이 길지 않아도 촬영에는 상당한 시간과 공이 들어가는 법이다. 실제로 몽골 편은 경우에도 사전에 장소를 답사하고 등장인물을 찾는 작업에만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이제 릭 자케 감독은 내년이 있을 페루 촬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귀한 섬유로 꼽히는 비쿠냐(Vicuña)의 원산지다. 내후년에는 이름 그대로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칭송받는 최상급 울(wool) '더 기프트 오브 킹스

&(The Gift of Kings®)'의 공급지인 호주와 뉴질랜드로 향할 예정이다. 사실 3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에 걸친 다큐멘터리 3부작을 택한 데는 촬영지의 매력이나 자신의 일에 장인 정신과 열정을 지닌 사람들을 만난다는 이점만 꼽은 건 아니다. '브랜드' 자체에 대한 호감 없이는 내리길 힘든 선택이다. 아카데미상을 받은 다음에 자신이 움켜쥔 엄청난 행운을 어떻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데 보탬이 될지 고민해왔다는 그는 "규모 있는 기업이나 브랜드들과의 경제적 연계 없는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했다. "첫 만남부터 로로피아나는 흥미로웠습니다. 일부러 '지속 가능한' 존재가 되려고 뭔가를 하지 않아도 이미 그 자체로 그런 기업이었으니까요.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는 일이 그들에게는 (직물의 소재가 되는) 섬유를 확보하고 목동과 관계를 쌓아나가기 위한 방법, 그러니까 '경제적 현실'이라고 할까요.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사례라 무척 마음에 들었죠." 어린 시절 자연과 교감하면서 자랐고, 생태학을 전공했으며, 환경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를 몸소 설립하기도 한 인물답게 다분히 현실 감각이 묻어나는 설명이다. 실제로 로로피아나는 10년 전부터 개체수는 줄이면서도 개체당 털 수확량을 높게 유지해 섬유 선도를 향상시키는 '로로피아나 방식'을 실천해오고 있다. 환경도 지키고, 품질도 최적화하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품질을 끌어올린 로로피아나는 2015년부터 '올해의 로로피아나 캐시미어상'을 지역 생산자에게 수여하고 있다. 또 페루에서는 비쿠냐의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 '프랑코 로로피아나 자연보호 구역'도 만드는 등 의미 있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행보에 대해 로로피아나의 CEO인 파비오 디안젤란토니오(Fabio d'Angelantonio)는 센스 있는 설명을 곁들였다. "우리는 환경적인 브랜드 자신과 스토리만이 아니라 흥미로운 고객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품질을 중시하고 안목이 뛰어난 로로피아나 고객들은 어떤 제품이라도 더 나은 방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는지도 알 수 있을 테지요." 글:고성연(상하이 현지 취재)

그레이 웨딩본 코트 5백만원대,
블랙 레이스 로즈 장식 스카티
블루 드레스 가격 미정, 레드 크리스탈 힐
1백40만원대 모두 프라다, 블랙 피라미드
백 2백99만원 본태가 베네통,
레드 레이스 글러브 가격 미정 구찌,
드롭 아이링 48만원 타니 by 미네타니.



COVER GIRL

빅 하우스들의 2019 베스트 코트 셀렉션.
photographed by jo sung hyun

블랙 & 화이트 체크 코트,
재킷, 팬츠, 아이링 모두 가격 미정
샤넬, 블랙 톱 가격 미정 막스마라,
옐로 체인 백 3백20만원 로저 비비에.



레이어드 코트 4백39만원,
미러 자수 새틴 셔츠 3백58만원,
레더 드레스 가락 미장, 스카이 블루
핀프스 1백20만15천원, 골드 클러치
2백33만원 모두 보테가 베네타,
살비 아이링 12만원 타니 by 미네타니.



레이드 코트 9백58만원, 베이지
셔츠 가락 미장, 옐로 스카프
3백10만원, 카키 롱부츠
2백49만원 모두 **타니**, 그린 파이프
백 7백75만원 **자랑시**, 주얼 아이링
38만원 타니 by 미네타니.





파넬 코트 6백70만원, 드레스
4백40만원, 레드 롱부츠
1백58만원, 골드 벨트 가격 미정,
멀티컬러 브로치 가격 미정,
이아쿠르 51만원 모두 구찌,
옐로 토트백 2백60만원 로아베.



캐딜라 울 코트 5백50만원,
블랙 레더 셔츠 5백2만5천원,
주얼 이아쿠르 가격 미정 모두 자캄시,
레드 벨트 백 2백15만원 켈디,
화이트 롱부츠 2백27만원 자미우.

그레이 체크 코트, 데님 셔츠,
브라운 팬츠 모두 가격 미정
브루넬로 쿠차넬리, 파이론 미니
바킷 숄더백 2백37만원 구찌,
핑크 골드 후프 이어링 7만원
타니 by 미네타니.

모헤어 카디건 1백28만원,
패턴 재킷 가격 미정, 소츠
가격 미정, 블랙 톱 가격 미정,
블랙 롱부츠 2백28만원 모두
막스아라, 골드 네크리스
28만원 타니 by 미네타니.

헤어 이일중
메이팅업 김도원
모델 NESSY
어시스턴트 김현민, 김승준
스타일리스트 채완석



로저 비비에 02-6905-3370
보태가 베네타 02-3438-7682
구찌 1577-1921
프라다 02-3218-5331
막스아라 02-511-3935
렌디 02-2056-9023
자랑스 02-546-2790
지미주 02-3438-6107
로에베 02-3213-2275
사텔 080-200-2700
브루넬로 쿠차넬리 02-3443-2831
타니 by 미네타니 02-3443-4164

the color of Joy

비비드한 컬러 팔레트로 시선을 끄는
2019 F/W 시즌 액세서리.
photographed by park jac yong



(위부터 시계 방향으) 미러 레더 소재 키치 펌프스 90만원대 **생 로랑 by 인도나 바카렐로**. 경쾌한 오렌지 컬러 미니 레전 백 가격 미정 **모이나**. 오버사이즈 바를 클로저가 감각적인 벨벳 소재 드레시 비비드 미니 백 3백20만원 **로저 비비에**. 태슬 장식 드로스트링을 더한 마테리세 가죽 버킷 백 1백30만원대, 크리스탈 장식 새틴 펌프스 1백20만원 모두 **미우미우**. 자연스러운 주름 효과를 준 메탈릭 램 스킨 소재 클러치 2백90만원대 **보타가 베네타**. 파플 시몬으로 인체감을 강조한 바케트 백 3백45만원 **펜디**. 레안보 컬러 스트라이프와 정글 프린트가 어우러진 실크 스카프 가격 미정 **에르메스**. 에디터 **이혜미**

생 로랑 by 인도나 바카렐로 02-6905-3924
모이나 02-2254-4150
로저 비비에 02-6905-3370
미우미우 02-541-7443
보타가 베네타 02-3438-7882
펜디 02-2056-9023
에르메스 02-542-6622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소꿉, 비호, 베토벤 등의 오르골 소리까지 담았다. 9만8천원 **리본**. 에디터 **이혜미**

(왼쪽부터) 아티스틱한 커팅 기술이 돋보이는 생 루이 토미 칼렉션의 크리스탈 글라스. 파플 컬러와 투명 컬러, 두 가지 제품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프레임을 따라 볼드한 크리스탈을 새긴 상글라스 가격 미정 **지미추 by 사필로**. 우아한 대리석 케이스로 장식성을 더한 레 부지 퍼퓸에 황초 21만5천원 **폴리 1803**. 사각형 주얼 버클을 매치한 RV 브로쉬 브레이슬릿 블랙 62만원 **로저 비비에**. 대체로운 모양의 크리스탈과 버튼으로 공예적 아름다움을 강조한 포링 클러치 가격 미정 **알렉산더 맥퀸**. 사각형 주얼 장식과 메탈릭 힐이 돋보이는 골드 브라운 새틴 물 가격 미정 **마닐로 블라니**.



Shine on me

각기 다른 색과 모양으로 빛나는
주얼 장식 액세서리의 낭만적 아름다움.
photographed by choi seung hyuk



(왼쪽부터) 스트랩부터 황까지 수조 전체를 심비 글리터로 덮어 눈부시게 반짝이는 오픈트 생들 1백16만원 **미우미우**. 리처드 자노의 화이트 자기와 그린 카버로 구성된 로즈 프린트 마그컵 52만원. 미주 모든 두 손바닥 안쪽에 스타 아이를 프린트한 자기 트레이 97만원 모두 **구찌**. 투명한 크리스탈 상패인 글라스 가격 미정 **에르메스**. FF 로고를 플러워 모티브 컬러 크리스탈로 장식한 화려적인 느낌의 펌프스 가격 미정 **펜디**. 슬더 스트랩, 톱 핸들로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도록 고안한 미니 사이즈 배지 **벨벳 백** 2백67만원 **로저 비비에**. 알렉산드로 멘디니가 손자의 공간을 지켜주는 수호천왕인 의미를 담아 디자인한 캔들라이트 라운 캄베넬로 뮤즈 블루.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소꿉, 비호, 베토벤 등의 오르골 소리까지 담았다. 9만8천원 **리본**. 에디터 **이혜미**

freedom of Choice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 남성과 여성, 클래식함과 자유분방함. 모든 것을 융합시키는 알레산드로 미켈레의 아름다운 욕망과 창의적인 능력은 사그라들 기미가 안 보인다. 지난 5월 28일 그의 고향 로마에서 열린 구찌의 2020 크루즈 컬렉션은 여전히 강렬하고, 철학적이며, 아름다웠다.

로마 카피톨리니 미술관, 구찌의 패션쇼를 허락하다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구찌(Gucci)는 지난 5월 28일(현지 시간) 로마 카피톨리니 미술관(Capitoline Museums)에서 구찌 2020 크루즈 컬렉션을 공개했다. 매년 예술적,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를 선택하며 남다른 철학과 스토리텔링을 강조하는 구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알레산드로 미켈레(Alessandro Michele)는 이번 장소 선정은 그가 추구해온 '구세계와의 대화를 잇는 것'으로, 특히 이번에는 그의 유년 시절을 연상시키는 곳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알레산드로 미켈레는 엑스클루시브한 장소에서 컬렉션을 선보임으로써 해당 지역의 독특하고 예술적인 유산과 미학을 널리 알리고, 상상력을 통해 현대적인 느낌으로 재구성해 컬렉션 자체는 물론 그 장소에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곤 한다. 카피톨리니 미술관은 풍부한 고대 유물 컬렉션을 통해 수 세기를 이어온 고대 로마의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장소, 로마 캄피돌리오 광장(Piazza del Campidoglio)에 있는 이 박물관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으로 알려져 있다. 박물관 건물은 광장을 둘러싼 콘세르바토리 궁전(Palazzo dei Conservatori), 누오보 궁전(Palazzo Nuovo) 등 2개의 궁전으로 이루어져 있고, 로마시대 미술품과 그리스, 이집트 유물을 소장·전시하고 있다. 특히 로마의 기원과 역사에 대한 유적이 많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두 궁전을 연결하는 지하 회랑에는 고대 로마 무렵과 비문이 전시돼 있으며, 박물관의 전시관뿐 아니라 계단과 로비, 통로 곳곳이 고대 로마의 작품으로 채워져 있어 그 웅장함과 화려함에 압도되는 분위기. 미술관의 수많은 유물을 배경으로 한 이번 컬렉션은 고대 로마풍 튜닉에서 미키마우스까지, 그가 추구하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담았으며, 1970년대에 시작된 여성의 자유에 대한 강렬한 지지를 표현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여성의 자궁을 자수로 표현한 드레스, 1970년대 페미니스트 슬로건이었던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My Body, My Choice)'라는 문구가 새겨진 재킷 등은 그 어느 때보다 이슈가 되기도 했다. 쇼에 초대된 관객들은 각자가 모두 고고학자가 되어 오로지 자신의 선택과 의지로 쇼를 즐길 수 있도록 어두운 조명 아래 손전등이 제공되는 흥미로운 콘셉트 또한 인상적이었다. 여성은 신성하며, 자유와 자기결정권은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은 자유를 통해 표현된다는 알레산드로 미켈레의 메시지, 2020 구찌 크루즈 컬렉션은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패션쇼로 기억될 듯하다.



1, 2 고대 로마풍 튜닉과 스카프, 화려한 컬러의 남성 복과 여성스러운 백의 매치, 신성한 조화기 기록하다. 3 구찌의 레전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알레산드로 미켈레. 4-7, 16 어두운 조명 아래 관객들은 손전등을 비춰 가며 쇼를 관람했다. 8-10 빈티지한 무드와 유행가 넘치는 룩들. 11 미술관을 배경으로 촬영 중인 모델들. 12 장정하고 화려한 카피톨리니 미술관 내부. 13-15 고대 유물을 연상시키는 액세서리와 1970년대풍 소품들. 17 구찌의 앰배서더인 그룹 EXO의 카이가 참석해 수많은 소녀 팬들을 열광시켰다.

amazing Golden Oasis

숨이 멎을 듯 장엄한 사막의 하늘과 신비로운 곡선, 태양 빛을 머금은 바위와 대지, 강하고 아름다운 야생 꽃과 식물. 올해 피아제의 하이 주얼리 컬렉션, 골든 오아시스는 사막의 황혼에서 새벽에 이르는 시간대에 드러나는 선명한 빛과 강렬한 색채를 구현했다. 화려한 젬스톤과 골든의 조화는 메종의 대담한 상상력을 현실로 구현하는 미학적 정수를 보여준다.



1 옐로 다이아몬드와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조합해 일몰과 일출 직전의 매혹적 순간을 표현한 플레이 오브 라이트 테마의 골든 아워 네크리스. 2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피크 8포인트 방콕에서 진행된 골든 오아시스 하이 주얼리 컬렉션 론칭 이벤트 현장. 3 플레이 오브 라이트 테마의 마네킹 쇼윈도 디자인. 루비, 핑크 사파이어를 새겨하고, 태양 빛을 떠오르게 하는 골드 스틱을 하나하나 필라스 데코 인그레이빙했다. 4 춤을 추듯 반복되는 역동적인 나뭇잎을 표현했다. 네이티브 블룸 테마의 리저넌트 오아시스 네크리스. 5 네이티브 블룸 테마의 데저트 플레이 네크리스. 끝없는 태양과 사막의 아자에서 영감을 받아 춤 사위에 걸처 완성한 네크리스. 6 데저트 마네킹 테마의 아메지스타블 아트렉션 이어링. 부드러운 곡선이 굽어지는 사막의 협곡을 연상시킨다. 7, 8 데저트 마네킹 테마의 블루 워터플 워치. 잔무조각을 앙상블하는 환경에서 기공하지 않은 최상의 화이트 컬러, 질이 가장 높고 크기가 큰 아메조브랄을 엄선했다. 9 사막의 선 네크리스와 이어링을 착용하고 행사장을 방문한 아시아 브랜드 앰배서더 공요진. 10 네이티브 블룸 테마의 리저넌트 오아시스 링. 2.26캐럿 페어 컷 다이아몬드와 장미색 마키즈 컷 에메랄드가 눈부시다. 11 피아제의 금세공 기술을 사용한 스타이신 스캐펠 모티브의 골든 인그레이빙 스트랩 워치.

위치에서 시작해 하이 주얼리까지

1백40년 넘게 최고의 위치 메이커이자 주얼리로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 피아제의 시작은 1874년 스위스 쥐라산맥의 작은 마을, 라 코트페(La Cote-aux-fées)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르주 에두아르 피아제(Georges Edouard Piaget)는 이곳에 위치한 가족 농장에 초정밀 무브먼트 제작을 위한 공방을 설립하며 승승장구했고, 1943년에는 브랜드명을 공식 등록했다. 1950년대 말에는 메종의 시그니처가 될 초박형의 울트라 신 무브먼트 디자인과 제조를 시작하며 위치메이킹 분야에서 매우 인상적인 발자취를 남기기도. 또 다채로운 컬러, 새로운 형태, 진귀한 보석, 그리고 하드 스톤으로 만들어진 다이얼과 골든을 결합한 주얼 시계를 선보이며 이브 G. 피아제(Yves G. Piaget, 창립자 조르주 에두아르 피아제의 4대손)의 독창성을 살린 주얼리 컬렉션을 강조하기도 했다.

피아제는 현재 위치와 주얼리를 함께 취급하고 있는 브랜드 중 유일하게 위치에서 시작해 주얼리로 확장한 브랜드다. 품질 좋은 무브먼트를 제작해 타사에 판매하던 작은 가족 공방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1950~60년대에는 타 매장에서 주로 선보였던 다이아몬드 세팅 워치들과 달리 대담한 디자인의 컷 워

치, 네크리스 워치 등 오직 여성만의 시계를 제작하기도 했고, 여성 시계의 인기에 힘입어 끊임없이 발전하는 주얼리와 화려한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선보이며 혁신의 길을 걸어온 것. 그중에서도 1960~70년대부터 선보인 하이 주얼리 피스들은 물론 미학적으로도 뛰어난 큰 사랑을 받았고, 최근에는 1년에 한 번씩 선보이며 그 맥락을 이어오고 있다.

사막을 여행하는 듯한 골든 오아시스 컬렉션

하이 주얼리는 구하기 쉽지 않은 정밀 희귀하고 진귀한 원석을 사용한다. 그런 이유로 디자인마다 1피스만 제작하는 것이 대부분. 고객이 원한다 해도 그에 맞는 원석을 다시 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원석이 모두 모이면 그제야 제작해 원하는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다. 그기간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숙련된 장인과 진귀한 소재, 순수한 젬스톤, 혁신적인 디자인이라는 완벽한 앙상블을 자랑하는 피아제의 하이 주얼리 컬렉션은 언제나 자연에서 영감을 받는다. 하지만 자연 그대로를 담기보단 한번 더 꼬아 추상적으로 아티스틱하게 표현하는 것이 특징. 올해 선보인 골든 오아시스 컬렉션은 황혼에서 새벽까지 고요하고 광활한 사막으로 떠나는 매혹적인 여정을 느끼게 한다. 지난 9월 18일 방콕에서 열린 론칭 이벤트에서는 골든 오아시스 컬렉션의 세 가지 테마 플레이 오브 라이트(Play of Lights), 데저트 미네랄(Desert Minerals), 그리고 네이티브 블룸(Native Bloom)을 담은 1백여 점이 넘는 눈부신 하이 주얼리를 만나볼 수 있었다. 먼저 플레이 오브 라이트 테마에서는 끝없이 펼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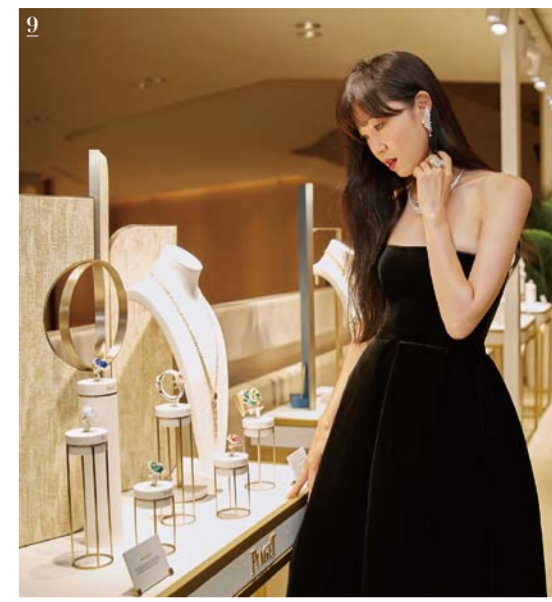


쳐진 사막의 하늘을 담은 하이 주얼리를 선보였다. 그중에서도 뜨겁게 타오르는 태양부터 별이 수놓인 밤하늘에 이르는 천체의 광채를 표현한 골든 아워 세트(목걸이, 귀고리, 반지, 시계로 구성)는 게스트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다. 따라서오는 옐로 다이아몬드와 순백의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조합해 표현한 골든 아워 네크리스는 일몰과 일출 직전의 매혹적 순간을 구현한 것으로, 여기에 사용된 옐로 다이아몬드는 1만 개의 다이아몬드 가운데 오직 1개만 사용할 수 있는 품질이며 총 4백50시간에 거쳐 완성되었다고. 정점에 오른 순간의 강렬한 태양별을 옐로 다이아몬드로 표현했는데, 피아제의 보석 감정사가 이 골든 아워 세트 제작에 필요한 다이아몬드를 수집하는 데만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데저트 미네랄 테마에서는 진귀한 다이아몬드와 루비, 사파이어를 조합해 태양 빛에 물든 매끄러운 바위와 대지를 추축하게 적시는 오아시스의 반짝이는 잔물결을 표현했다. 사막 계곡 사이 은밀한 곳에 숨겨진 장엄한 폭포에서 영감을 받은 블루 워터플 세트(목걸이, 귀고리, 반지, 시계로 구성)는 미지의 장소가 주는 신비로운 매력을 드러낸다. 블루 사파이어가



투명한 화이트 다이아몬드와 대조를 이루며 수백만 개의 물방울에 반사되는 태양 빛을 표현한 것. 폭포를 테마로 한 블루 워터플 워치는 자개 다이얼을 감싸는 베젤에 마키즈 컷 사파이어를 세팅했고, 브레이슬릿에는 메종의 시그니처인 팔라스 데코(성벽 느낌의 데코)를 수작업으로 인그레이빙해 매력을 더했다. 쏟아져 내리는 사파이어와 매혹적이고 강렬한 대조를 이루며 마치 시간을 품고 있는 자연 그대로의 거친 표면 암석을 연상시킨다. 마지막으로 네이티브 블룸 테마. 착박한 사막에서 살아남은 야생의 꽃과 식물의 강렬한 에너지를 느끼게 하는 디자인이다. 메마르고 거친 사막과 이름

다음에 대조를 이루어 오히려 더 평화로운 파라다이스를 느끼게 하는 오아시스 세트(목걸이, 귀고리, 반지로 구성). 섬세한 나뭇잎을 표현하기 위해 디자인에 딱 맞는 매력적인 에메랄드를 찾는 데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오아시스의 무성한 나뭇잎을 표현한 섬세한 마키즈 컷 에메랄드를 줄지어 세팅한 리저넌트 오아시스 네크리스는 굽이굽이 흐르는 강을 연상시키는 곡선과 3.01캐럿 싱글 페어 컷 다이아몬드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탈착 가능한 다이아몬드는 화이트 골든 체인에 단독으로 착용하면 부담스럽지 않은 데일리 네크리스로도 연출 가능하다. 이날 행사는 디너로 이어졌는데, 경쾌한 댄스 공연과 모래를 이용한 라이브 페인팅을 비롯해 컬렉션의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와 화려한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디너 파티에서는 드레스를 입은 모델들이 피아제 골든 오아시스 컬렉션의 작품을 착용하고 객석 사이를 걸으며, 조명은 리듬을 타고 움직였고, 게스트들은 테이블 한가운데 뜰에서 등장한 글리터 뚝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며 즐거워했다. 이어 작은 종이 조각들이 폭발하듯 쏟아져 내리며 하이 주얼리만큼이나 화려하고 완벽한 이브닝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에디터 장미영(명목 한지 취재)



interview with Chabi Nouri(피아제 CEO)

2014년 마케팅 &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로 피아제와 인연을 쌓아 2017년부터는 CEO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세비 누리를 만났다.



○ 피아제 CEO로서 2년 반을 보냈습니다. 어떤 미션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뤘다고 생각하나요? 피아제의 특별함과 독자적인 장인 기술을 강조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는 곧 아트 오브 피아제(Art of Piaget)라는 이름으로 소개될 예정인데, 'Art of Light', 'Art of Color', 'Art of Gold', 'Art of Movement'가 바로 그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피아제 주얼리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워치는 물론 주얼리 역시 신뢰도가 높거든요. 피아제가 하이 주얼리를 선보인 지는 60년이 지났고, 스위스 본사 내부에 매우 큰 하이 주얼리 광장이 있지요. 우리의 기

술력과 노하우 등의 자원으로 100% 인하우스로 제작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로, 그는 그 명맥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 브랜드 철학을 담은 타이틀 'Sunny Side of Life' 문구는 진전하고 평온한데 활기 있고, 여유로우며 긍정적인데요. 이 이름을 붙인 것은 2018년부터지만, 사실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출가한 순간을 함께하며 기쁨을 나누고,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대하는 것은 피아제의 스펠라와 연결되거든요. ○ 요즘 전 세계 여성들의 주얼리 트렌드는 어떤가요, 그리고 피아제는 그것에 어떻게 발맞추고 있나요? 누군가에게 선물 받기보다는 자신을 위한 선물로 구입하는 추세가 더욱 강해졌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고, 피아제는 여성이 스스로를 위해 구입하는 비율이 더 높아요. 우리는 그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제품이 여성들에게 어필한다는 것을, 그들이 우리 제품을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니까요. 또 다른 트렌드는 멀티유즈가 주목받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 골든 오아시스 하이 주얼리 컬렉션 중 롱 네크리스는 브로치, 브레이슬릿 등으로 변형해서 연출할 수 있어요. 이런 제품은 매년 아주 좋은 반응을 얻어요. ○ 피아제는 장인 정신과 도전 정신을 담아내는 하이 주얼리 컬렉션도 (클래시, 빈티지의 느낌보다는) 매우 모던하고 젊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지난 몇 년간은 태양을 향한 여정을 담은 컬렉션을 선보였고, 이번 골든 오아시스 컬렉션은 사막의 다양한 자연현상을 골든 세공 기술이 녹아 들어간 하이 주얼리로 표현했죠. 다음 하이 주얼리 컬렉션의 테마를 지금 공개할 수는 없지만(웃음) 우리는 아트 오브 피아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컬렉션을 계속해서 선보일 거예요. ○ 골든 오아시스의 세 가지 테마 중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테마는 뭔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플레이 오브 라이트입니다. 옐로 다이아몬드 때문이지요. 이번 컬렉션에 사용된 옐로 다이아몬드는 희소성이 매우 높은 펜시 비버드 컬러예요. 1만 개 중 오직 1개의 다이아몬드만이 펜시 컬러로 분류되며, 이 중 6%의 펜시 컬러 다이아몬드만 이 펜시 비버드 컬러로 분류되지요. 이렇게 높은 퀄리티의 다이아몬드는 쉽게 만나볼 수 없답니다. 우리는 컬러 마스터라고 자부합니다. 강렬한 컬러를 주로 사용하며, 파스텔컬러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펜시

니다. 하드 스톤(유족 준 보석과 피라세스 스톤)보석을 사용할 때 모두 대비되는 강렬한 컬러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바로 피아제를 유니크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 메타는 개인적으로 피아제의 팔라스 데코 인그레이빙(Palace Deco Engraving)이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이번 새로운 독특한 기법인 브랜딩의 뉴 시그니처가 되죠. 또 개발하고 있는 랭카가 있죠? 피아제에서는 10개가 넘는 금세공 기술을 제품에 적용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한국에는 11월에 론칭한 스타이신 스캐펠 모티브의 골든 인그레이빙 스트랩 워치가 있었어요. 금세공 테크닉을 활용해 마치 눈꽃과 같은, 혹은 물결이 흘러가는 듯한 텍스처를 표현하기도 하죠. 이외에도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말해드릴 수는 없네요. (웃음) ○ 자연은 주얼리 메종에 많은 영감을 주고 있지요. 피아제는 왜 하필이면 '사막'을 선택했나요? 우리는 언제나처럼 이번 컬렉션을 위해 자연에서 영감을 찾았죠. 사막은 태양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색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태양이 지중해에 그리는 경관을 담았죠(Sunlight Journey), 북극의 방파제 하얗게 부서지는 태양 빛(Sunlight Escape)도 담았죠. 금세공 사막은 우리의 금세공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대상이고, 피아제의 정수를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양은 사막에서 다른 세상과 전혀 다른 광경으로 연출되죠. 우리는 그 아름다움에 주목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오늘 당신의 의상이 너무 멋져요. 스타일링 포인트는? 제가 착용한 주얼 워치는 위치와 주얼리가 결합된 형태로, 골든, 컬러, 그리고 무브먼트가 모두 아우러진 제품입니다. 매우 피아제다운 제품이지요. 저의 스타일링 포인트라면 피아제 제품처럼 컬러풀하고, 우리의 제품을 보다 더 강조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실루엣의 의상을 입는다는 점입니다. 피아제에 호기심이 전에는 블랙을 많이 입었지만, 지금은 컬러풀한 의상을 많이 입고 있어요.





‘엔터테인먼트 수도’ 라스베이거스의 진화

Joyful & Beautiful

건축학자들은 도시를 가리켜 '변화를 통해 성장하는 거대한 인공물'이라고 얘기한다. 시간과 더불어 성장한 건축과 공학의 합작 인공물이자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사막 위에 꽃피운 라스베이거스는 그 변화의 속도와 폭이 가장 경이롭게 느껴지는 도시가 아닐까 싶다. 내온사인과 광고판으로 점철된 단순한 '유흥의 도시'가 아니라 음악, 공연, 현대미술 같은 문화 예술, 스포츠, 미식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여행자들의 발길을 '거둬' 이끄는 매혹을 품게 된 엔터테인먼트 수도에 다녀왔다.

흥미롭게도 미국 네바다주 남동부 사막 한가운데 자리한 라스베이거스(Las Vegas)는 스페인어로 '초원'이라는 뜻을 지녔다고 한다. 1905년 철도가 개통하면서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그렇게 불렸는데, 스페인 사람들이 뜻밖에 온천수가 솟아나는 길 발견하고는 지도에 라스베이거스라 적었다고 한다. 1936년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후버댐이 완성되면서 이 사막 도시는 '유흥'으로 각광받는 관광도시가 된다. 교통 인프라도 발달해 상업적으로 번영하기는 했지만, 사실 그다지 유흥하지 않은 이미지의 프리표가 달려 있었다. 온갖 간판, 광고판, 내온사인, 유럽 도시나 고전에서 베껴온 듯한 모조품... 이 같은 상징들과 연계된 뭔가 추하고 복잡하고 지저분한 이미지였다. 그런데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건축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파격적인' 시선이 대두됐다. 현대건축과 이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건축가 로버트 벤투리와 데니스 스콧 브라운이 《라스베이거스의 교훈》이라는 책을 펴내면서 모더니즘이 고집하는 '순수한 질서의 틀에서 벗어난 기호학을 끌어 들여 도시를 바라보는 참신한 잣대를 제시한 것. 간단히 말하자면 이들은 라스베이거스의 혼잡한 거리를 수놓은 수많은 상징이 오히려 도시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역동적인 매력을 띠게 한다는 주장이었다. 휘황찬란한 광고 슬로건이나 일상적 문구가 범람하는 '자동차 도시'를 그려보면 언젠가 팝 아트를 연상시키는 구석이 있지 않은가. 물론 주로 화계에서 일어난 파장이었기에 도시 전체에 따라붙는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달라졌다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말이다. 어쨌거나 20세기 후반을 향해 달리면서 라스베이거스는 단순한 활력의 도시가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의 수도'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99년에는 비계업 산업 분야의 매출이 가장 큰 피어를 차지하게 됐다는 통계가 있다. 2008년 지구촌을 강타한 경제 위기로 타격을 받기는 했지만, 21세기의 라스베이거스는 그야말로 '일취월장'의 모범 사례로 꼽힐 만하다. 건축과 디자인, 공학, 예술, 미식, 쇼팽 등 갖가지 콘텐츠

츠가 흥미롭게 얹혀 있고, 수많은 이들의 발길을 이끄는 '브랜드 도시'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혹자는 '혁신'이라고 부르는데 이 도시의 한층 업그레이드된 면면을 소개한다.

둘째가려면 사려운 '쇼 엔터테인먼트', 공연의 메카
라스베이거스만큼 'The Show Must Go on'이라는 유명한 글귀가 잘 어울리는 도시는 없을 듯하다. 주요 호텔마다 내로라하는 가수나 공연단을 앞세운 전속 쇼를 두었기에 매일 저녁 오감을 즐겁게 자극할 만한 '이벤트'가 널려 있다. 예컨대 서커스를 공연 예술로 승화시켰다는 '태양의 서커스'도 몇



가지 버전이 진행되고 있고, 레이디 가가나 머라이어 캐리 같은 슈퍼스타의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매일같이 공연장을 찾는다고 해도 위나 다양한 스펙트럼에 그리 지루해질 틈이 없을 것이다. 실제로 올라를 초 필자가 라스베이거스에서 보낸 한 주의 저녁은 내내 '공연'으로 채워졌는데, 저마다 색채가 달랐다. 윈(Wynn) 호텔에서 만날 수 있는 '르 레브(Le Réve)'는 '꿈'이라는 의미처럼 몽환적인 느낌의 수중 곡예 쇼다. 화려하고 역동적인 무대장치 속에 은근히 긴장감이 감돌다가 때때로 박진감이 넘치는 구성과 댄서들의 기술이 빼어나다. 여성이라면(남성 동반자가 있어도 기꺼이 따로 볼 의향이 있다면) 스타 영화배우 채닝 테이텀(Channing Tatum)이 기획하고 영화로도 제작된 바 있는 '매직 마이크(Magic Mike Live)'를 주목할 만하다. 성에 대한 과감한 판타지를 유희하고 섹시하게 풀어내는 남성 댄스 스트립쇼로, 18세 이상이면 관람 가능하다. 내용을 떠나 근육질 댄서들이 단독으로, 혹은 '군무'를 추는 강렬한 모습이 절로 함성을 자아낸다. 공연장은 하드 록 호텔(Hard Rock Hotel)에 있다.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미술 쇼의 대명사 데이비드 코퍼필드 쇼(David Copperfield Show)도 있다(MGM 그랜드 호텔). 이제 60대인 코퍼필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할리우드급 무대장치와 기술을 동원해 관객의 눈을 멍치게 속여내며 변함없는 센스를 자랑한다. 9월에 라스

베이거스를 찾을 수 있다면 더 역동적인 무대도 만날 수 있다. 도시를 대표하는 음악&예술 축제라 자리 잡은 '라이프 이즈 뷰티풀(Life Is Beautiful)' 페스티벌이 펼쳐지기 때문이다(https://lifeisbeautiful.com). 3일 동안 다양한 장르의 라이브 공연이 이곳저곳에서 열리는 이 축제는 음악 팬이라면 답지도 출처도 않은 더없이 상쾌한 날씨 속에서 해마다 강력해지는 라인업으로 행복감이 도취할 수 있는 최고의 현상이다. 올해는 포스트 말론(Post Malone), 캔스 더 래퍼(Chance the Rapper), 빌리 아이리시(Billie Eilish), 뱀파이어 위켄드(Vampire Weekend), 그리고 K-팝 보이 그룹 몬스타엑스 등이 무대를 달렸다.

정중동(靜中動)·동중정(動中靜) 미학을 품은 콘서트
물론 주로 밤에 즐기는 쇼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더라도 볼거리, 할 거리는 넘쳐난다. 그중에서도 단연 인기 높은 '액티비티'를 꼽으려면 헬기 투어와 카 레이싱이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즐기는 '액티비티'의 큰 장점은 '가까운 거리'를 들 수 있다. 심지어 대자연의 위용을 한껏 체험할 수 있는 그랜드캐니언 헬기 투어도 그렇다. 20분 정도만 차로 이동하면 메인 스트립 근처에 있는 선댄스 헬리콥터(Sundance Helicopter) 투어에 동착할 수 있다. 차로 5시간도 넘게 걸리는 거리지만 헬리콥터를 타고 사뭇히 날아오르면 약 40

분 후 그랜드캐니언에 도달한다. 헬기에서 내려 보호구역에서 삼페인을 걸들인 피크닉을 하는 투어 코스가 1인당 4백 45달러로, 가격도 합리적인 편. 레이싱을 사랑한다면 스포츠카를 타고 짜릿한 주행을 경험할 수 있는 '이그조틱스 레이싱(Exotics Racing)'을 잊지 마시라. 원하는 차종을 골라 직접 운전할 수도 있고, 전문 드라이버가 나뮴의 스티어링을 선 사하는 '동승(Ride Along)' 체험도 가능하다.

지나치게 가슴 뛰는 역동적인 활동에 좀 지쳤다면, 아니면 원래 고요한 산책이나 사색을 선호한다면 미술품이나 전시 감상을 추천하고 싶다. 라스베이거스에서 무슨 '아트'냐고? 필자도 그런 의문을 품었지만, 이 도시에도 썩 괜찮은 미술 콘텐트가 존재한다. 먼저 '호텔 아트 산책'은 부담스럽지 않고 그리 거대하지 않은 라스베이거스의 동선을 잘 활용해볼 수 있는 옵션이다. 파크 MGM 호텔과 아리아(Aria), 브다라(Vdara), 팜 카지노 리조트(Palms Casino Resort) 등은 로비와 복도, 앞뜰 등 여기저기에 현대미술 작품이 즐비한 곳들이다. 잘 보면 데이비드 호크니나 데이미언 허스트 같은 슈퍼스타의 작품도 마주칠 수 있다. 또 럭셔리 브랜드들만 모아놓은 크리스털 쇼펩몰(The Shops at Crystals)에 가면 내부 벽면을 아름답게 감싸거나 터널 터널을 환상적인 색채로 물들인 미국 현대미술의 거장 제임스 터렐의 설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쇼펩몰 내부이 비동매장에서 빛의 효과를 활용한 감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터렐의 작품 'Akhob'을 영구 전시하고 있다(예약은 필수). 또 차로 20~30분 거리에는 사막 위를 경쾌하게 수놓은 스위스 현대 미술가 우고 론디노네(Ugo Rondinone)의 설치 작품 '세븐 매직 마운틴(Seven Magic Mountains)'이 기다리고 있다.

호텔과 미식의 천국, 부티크 감성 등 다양성을 녹이다

라스베이거스를 한히 밝히는 내온사인 못지않게 많고, 그래서 '선택 장애'를 안겨주는 듯한 목록이 있으니, 바로 호텔과 레스토랑이다. 언젠가부터 미식 히브로 자리 잡은 이 도시에는 지구촌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 셰프들이 이끄는 내로라하는 파인 다이닝 브랜드가 모여 있다. 대부분 호텔 안이나 연결되어 있는 쇼펩몰에 자리해 예약만 해두면 이동하기에도 편리한 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본 듯한 조각상들이 가득한 시저스 팰리스(Caesars Palace) 호텔에는 그 유명한 노부(Nobu) 레스토랑이 있다. 일식 세계화의 선봉장으로 활약해온 노부 마사히사의 미식 세계를 만끽하고 난 뒤에는 근처에 자리한 밴더펌프 칵테일 가든(Vanderpump Cocktail Garden)에 들르는 것도 좋은 생각일 듯하다. 우아하고 신비로운 인테리어를 배경으로 맛의 조화가 근사한 칵테일과 달콤한 디저트를 놓치지 아까우니 말이다. 라스베이거스에는 유독 대형 호텔이 많지만, 최근에는 부티크 감성의 호텔을 점막하는 시도가 보여 눈길을 끈다. 시저스 팰리스 내부에 노부 호텔이 들어서 있고, 파크 MGM에는 뉴욕, LA에 있는 인기 부티크 호텔 브랜드인 노매드(NoMad)가 입점해 있다(맨 위에 있는 4개 층이 노매드 호텔의 공간인데, 건물 외관을 보면 절은 카키색 띠를 둘러 '표시'를 해줬다). 노매드 호텔에 있는 동명의 '더 노매드(The NoMad)' 레스토랑과 테킬라 바 마마 래빗(Mama Rabbit)은 투숙객이 아니더라도 꼭 들러볼 만한 '핫플'이다. 산뜻하고 아끼자 기한 아침 식사를 하고 싶다면 벨라지오(Bellagio)의 명소 사렐스(Sadelle's)를 추천할 만하다. 개인적으로 최고의 스테이크 하우스로는 스타 셰프라는 명성이 부끄럽지 않은 쿠치나 바이 울프강 펙(Cuccina by Wolfgang Puck)을 꼽고 싶다(크리스털 쇼펩몰 안에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식 등 아시아 요리가 몹시 생각나는 날이 있다면 조선회로 & 나라 테판(Chosun Hwaro & Nara Teppan)이 플래닛 할리우드에 자리하고 있음을 기억하자. 미식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다섯 끼를 소화하기는 힘들기에 아마도 '다음'을 기억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글 & 사진 라스베이거스 현지 취재



1 스위스 현대미술가 우고 론디노네(Ugo Rondinone)의 거대한 설치 작품 '세븐 매직 마운틴(Seven Magic Mountains)'. Photo by SY Ko 2 남성 댄스 스트립쇼 매직 마이크(Magic Mike Live). ©Jerry Metelus 3 짜릿한 스포츠카 레이싱을 즐길 수 있는 '이그조틱스 레이싱(Exotics Racing)'. 4 그랜드캐니언 헬기 투어는 인기 만점 액티비티. 선댄스 헬리콥터(Sundance Helicopter) 투어는 잠시 내려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상품도 제공한다. 5 매해 9월에 열리는 라스베이거스의 음악 & 예술 축제 라이프 이즈 뷰티풀은 갈수록 강력해지는 라인업과 스트리트 아트 등 예술적 요소가 돋보인다. Courtesy of Life Is Beautiful 6 파크 MGM은 맨 위 4층에만 럭셔리 부티크 호텔 노매드(NoMad)가 들어서 있는 독특한 콘셉트를 선보인다. 7 노매드 호텔의 감각적인 아시아 동보아는 '더 노매드(The NoMad)' 레스토랑. 8 시저스 팰리스(Caesars Palace) 호텔이 자랑하는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노부(Nobu)'. 9 스타 셰프 울프강 펙의 명성이 인기를 발휘하는 쿠치나 바이 울프강 펙(Cuccina by Wolfgang Puck). 럭셔리한 크리스털 쇼펩몰(The Shops at Crystals)에 들어서 있다. 10 브랜디 히키에 인상깊었던 벨라지오의 사렐스(Sadelle's). 7~9 Photo by 김주혁



Ripe Orange
플 포드 보이 앤 걸즈 #05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소프트 매트 텍스처로, 부드럽게 발리는 피우다리 파나기가 특징. 모링가 버터 포물리를 함유해 속 건조와 각질 걱정이 없다. 2g 4만5천원. 문의 02-6971-3211 **나스 립스틱 스티트 유어 앤드스** 피치 컬러가 살짝 가미된 맑고 열은 오렌지 컬러. 시어 텍스처로 부드럽게 발리고 은은하게 반짝여 데일리로 사용하기 적합하다. 3.5g 3만9천원. 문의 02-6905-3747



Passion Red
디올 루즈 디올 울트라 케어 #999 진돗빛 나는 화이트로 새긴 CD 코어가 영랑 성분을 함유해 입술을 건강하고 촉촉하게 가꿔준다. 수분감이 12시간 지속된다. 3.2g 4만5천원. 문의 02-3480-0104 **조르조 아모니 립 마이스트로 #415** 가을 햇살에 붉게 물든 단풍 컬러를 담은 빈티지 메이플 레드. 톤 다운된 그윽한 컬러가 입술에 밀착되고 편안한 톤라스팅 효과를 선사한다. 6.5ml 4만5천원. 문의 080-022-3332 **에스티 로더 퓨어 컬러 디자이너 립스틱 #314** 생기 넘치는 컬러 표현에 중점을 둔 매트한 텍스처 립스틱으로, 쿠틀러 런웨이에서 영감을 받은 레드 컬러를 담았다. 엄청난 보습 효과를 겸비한 25% 순수 색소가 특징. 4g 4만5천원. 문의 02-6971-3212



Lip service

하늘 아래 같은 컬러는 없다. 여성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피치·레드·핑크·오렌지 컬러 중에서도 이 계절에 더 잘 어울리는 살짝 짙은 가을 컬러 립스틱. *photographed by choi seung hy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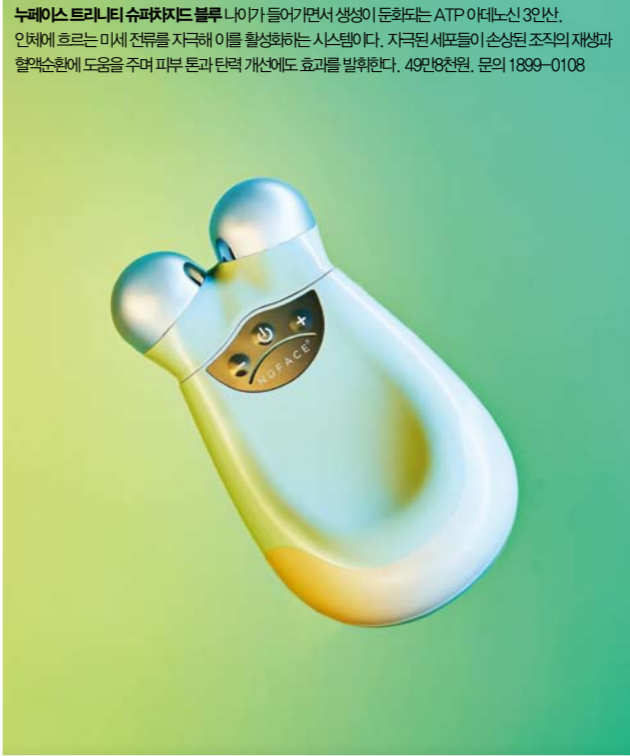
Smudge Peach
나스 립스틱 바버베라 창립 25주년 기념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아이코닉 립스틱 컬렉션 72가지 컬러 중 피치 컬러. 촉촉하고 부드럽게 발리며 은은하게 반짝인다. 3.5g 3만9천원. 문의 02-6905-3747 **골레드보 보메 리파인드 립 루마니어 5 퍼펙트** 피치 맑은 오렌지색 코랄 핑크 컬러의 핑킹 컬러 밤. 비르는 향수에 따라 투명한 컬러부터 선명한 컬러까지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1.6g 6만원. 문의 080-564-7700 **에디터 장미윤**



Sugar Pink
시슬리 르 워드 루즈 #20 컬러와 트리트먼트 두 가지를 모두 잡았다. 탱탱하고 매끄러운서 아려 보이는 입술을 연출해주는 립스틱. 8시간 이상 수분을 공급한다. 3.4g 6만원. 문의 080-549-0216 **샤넬 루즈 입술로 인크 퓨전 #808** 입술에 닿는 순간 뽀뽀 같은 효과를 주는 미세한 무광 실리콘을 함유해 부담 없이 편안하다. 워터프루프 기능을 갖추어 번지지 않으며 8시간 동안 지속된다. 6ml 4만5천원. 문의 080-332-2700 **겔랑 카스카스 다이아몬드 #544** 입술에 미끄러져듯 부드럽게 발리는 새틴 피-시로 특별한 굵드 파카자와 다이아몬드 커링 볼링이 특별한을 전하는 리미티드 에디션. 3.5g 4만5천원. 문의 080-343-9500



보미라이 완주원인 마스크 완주원인이 1분에 약 2천 번 이상 세포를 자극해 피부 속 수분의 파장을 높여 알레르겐을 축적한다. 활성화된 세포가 노폐물과 중금속 배출을 돕고, 탄력과 보습력을 개선해 피부 재생에 효과적이다. 99만원. 문의 1833-3550



누레아스 트라.티 슈파워즈 블루 나이가 들어감에 생기는 둔화되는 ATP 아데노신 3인산. 인체에 흐르는 미세 전류를 자극해 이를 활성화하는 시스템이다. 자극된 세포들이 손상된 조직의 재생과 알레르겐에 도움을 주어 피부 탄력 개선에도 효과를 발휘한다. 49만9천원. 문의 1899-0108



DPC 스킨스 LED 마스크 총 7백20개 LED 빛이 진피층까지 침투해 피부 노폐물 배출을 돕고, 영양 공급을 촉진한다. 노화 집중 관리, 트라블성 피부 관리, 진정 및 보습 등 회복 관리, 총 세 가지 모드를 제공한다. 1백35만원. 문의 02-544-2468

Beauty innovation

대세는 홈 케어. 얼굴뿐 아니라 두피, 목 주름까지 영역 확장에 나선 뷰티 디바이스 9선. *photographed by choi seung hyuk*



트리아스킨 라뉴 레이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FDA)의 승인을 받아 전세계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락셔널 레이저 의료 기기. 눈가 주름과 거친 피부결 개선에 도움을 주며, 핸들링 타입으로 목 주름까지 관리할 수 있다. 64만9천원. 문의 080-369-3300



셀라틴 LED 마스크 클라리피 근적외선과 레드 LED, 블루 LED, 세 가지 파장으로 피부 탄력부터 여드름 등 문제성 피부를 아우리며 고기능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격으로 기능 제어가 가능하고, 전용 컬러를 통해 피부 변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2백13만원. 문의 1688-1026



실큰 페이스라이트 2.0 피부 속 탄력을 채우고 주름 개선에 효과적인 비아몰라 고주파 에-치(RF)와 세포 재생과 콜라겐 생성, 피부 탄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LED 레드 라이트, 그리고 이를 피부 속 진피층까지 도달시켜주는 열에-치 기능을 조합했다. 55만원. 문의 080-246-1234



엘라너 인텐시브 LED 마스크 프라미엄 인텐스브 아니라 두피까지 한번에 관리할 수 있는 아이점. 얼굴 피부에는 빛과 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고 두피에는 과도한 유분과 각질을 개선한다. 고유의 LED 옵티미저 컬러를 통해 왜곡 없이 LED 빛이 피부에 최대한 투과한다. 1백51만원. 문의 02-3281-7700



메이든 스킨리프 테라피2 사용자의 피부를 진단해 수분, 윤기, 탄력 등 필요한 케어를 제공한다. 케어 후 즉각 LED 개수를 통해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데, 3개 정동 시에는 추가 관리가 필요한 해당 모드를 추천해준다. 민감성 피부에는 수분, 윤기, 탄력 개선 기능을 각각 1분씩 케어해준다. 20만원. 문의 080-023-5454



LG 프라임 데어 LED 벵케어 피부 속 깊은 층까지 도달하는 고유 기술인 코어 레이저를 적용해 목 부위 피부 탄력과 수분 증가에 도움을 준다. 인체에 무해한 실리콘 소재로 제작했으며, 목둘레에 맞춰 90도로 시야를 조정할 수 있어 편안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1백19만9천원. 문의 1544-7777 **에디터 이지이**

editor's Pick

보습과 재생 효과, 편안한 향으로 지친 피부와 마음을 달래줄 환절기 뷰티 아이템.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브롬 by 라베르비 클렌징 오일 캡슐** 식물성 오일 이 모든 피부 타입을 아우르며 메이크업과 피부 불순물을 지극 없이 부드럽게 녹여준다. 세안 후에도 땅기지 않고 촉촉하며 천연 향이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오일을 담은 캡슐은 자연 분해되어 생체계에도 안심. 여행용으로도 이상없음이다. 50캡슐 62.5ml 11만원. 문의 02-2056-1295. *by 에디터 이수지*

나스 에이스스 립스틱 리미티드 에디션 #재인 1970년대에서 영감을 얻은 화려한 글리터 케이스를 적용했다. 총 네 가지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 중 #재인은 브라운 계열에 가까운 장미 색조(데라코르드 로즈로, 분유가 있는 데일리 메이크업은 물론 레트로 룩 연출에도 두루 잘 어울릴 듯. 4.2g 4만1천원. 문의 02-6905-3747. *by 에디터 이혜미*

결량 홀리데이 메이크업 컬렉션 팔레트 글로멘드 가을 감성을 어울리는 차분한 컬러 팔레트와 화려한 파티 메이크업이 가능한 글리터 세로로 다채롭게 구성했다. 폭신한 텍스처로 가루 날림이 적고 눈가에 자연스럽게 밀착된다. 순채주가 없어 메이크업 시 산도를 따라 차례로 바르면 반짝이는 연한 파티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다. 10g 10만5천원. 문의 080-343-9500. *by 에디터 이수지*

구미 불롬 바디 크림 피부에 부드러움과 보습감을 주는 것은 기본이고, 따로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될 만큼 깊고 진한 향이 마음에 든다. 오자날 불롬 오드 퍼플 향을 담았는데, 여기에 코코넛 오일과 사바티를 함께해 좀 더 상쾌한 느낌. 피부에 바로 스며들어 끈적이지도 않는다. 180ml 9만9천원. 문의 080-850-0708. *by 에디터 장미윤*

벌슈 by 네이포르테 리스토라티브 트리트먼트 마스크 식물성 단백질과 비오브 나무 시앗 오일이 메이크업의 유 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 수분과 영양을 선사한다. 샴푸 후 물기를 제거하고 적당량을 머리에 도포해 2~3분 후 흐르는 물에 씻어주면 끝. 단 1회 사용만으로도 효과를 똑똑히 알겠다. 50ml 4만원. 문의 0079-844-341-351. *by 에디터 이수지*

비다비지 특식 더 뮤트 립 드레스 #63 콜라미르스 라한나 등 여러 셀라비드와 조합하는 메이크업 이터스 이터와 프랜차이즈 협업해 완성한 컬렉션. 벨벳 텍스처가 인기지만 인문 부드럽게 밀러 입술에 착 붙는다. 첫느낌은 매트한데, 발보면 촉촉하게 마무리된다. 맑고 톡톡 애플리케이션 덕에 정교한 입술 라인 표현도 가능하다. 7g 2만9천원. 문의 02-3479-1922. *by 에디터 이수지*

라 메르 크림 드 라 메르 스페셜 데코 X 마리오 엔 그레이 소렌티 이터스틱한 패키지는 세계적인 사진작가 마리오 소렌티와 그의 딸, 그레이 소렌티가 함께 작업한 것으로, 부부가 바닷가에서 보낸 여름의 추억을 흑백사진에 담았다. 해양 식물 성분으로 브랜드의 기능성을 연 라 메르가 바다를 향한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흥미롭다. 60ml 39만9천원. 문의 02-3440-2927. *by 에디터 이혜미*

카멜 크림 드 코르 힘트 바디 버터 홀리데이 리미티드 에디션 향긋한 일라스트 작가 아나네 레펠과 협업한 패키지가 눈길을 끈다. 카멜 열린 버터크림을 연상시키는 노랑고 폭신한 크림이 특징하는데, 사바티, 호호바 버터의 향긋한 밤새까지 더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듯한 기분 리미티드 텍스처로 피부에 바로 온 은한 관능이 된다. 226g 5만9천원. 문의 080-822-3322. *by 에디터 이혜미*

에스피 코어 라-뉴트리브 알티메이트 다이아몬드 트랜스포에이트비트 에-지 유을 인퓨전 두 가지 세럼 고유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 이중 패키지에 각각 세럼을 담았다. 각 세럼에는 블랙 다이아몬드 트러플 추출물과 영양 진주 성분, 정제된 24K 금을 함유했다. 일주일간 꾸준히 사용하면 갈라 피부에 생기가 들고 피부결이 매끄럽게 정돈되는 느낌. 가볍고 촉촉하게 밀러 부드럽게 흡수되는 것도 장점이다. 30ml 54만원. 문의 02-6971-3212. *by 에디터 이수지*

에이센틱 랩탈 등을 실행을 하지 않고, 동물성 원료도 사용하지 않아 프랑스 이브 비건 인증을 받은 국내 최초 비건 인증 고보습 랩탈. 입술 온도에 따라 반응하는 컬러 피그먼트가 촉촉하고 자연스러운 컬러로 발색되어 하루 종일 부담 없이 사용하게 된다. 케이스 디자인도 매력적이다. 3.4g 3만3천원. 문의 1544-5114. *by 에디터 장미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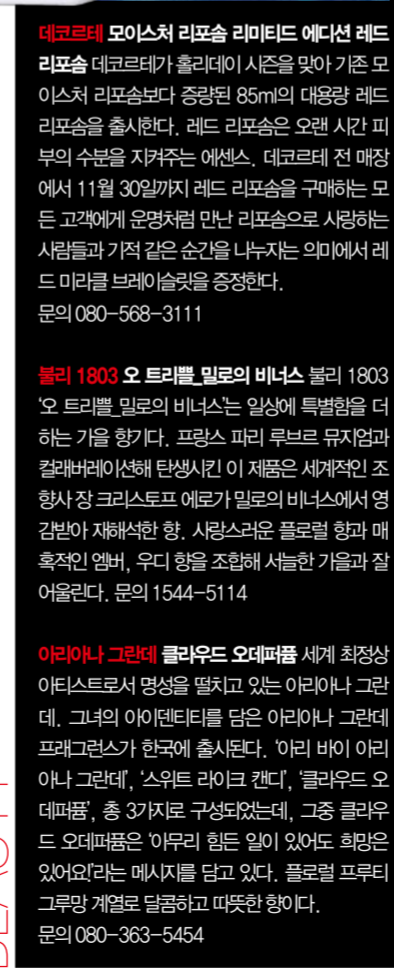
SK-II 피페라 에센스 핀다키사 리미티드 에디션 전설의 성분 '피페라'의 파워를 산성하고 과감하게 이터 패키지로 디자인으로 콜라미르 에디션. 나이든 주사사의 주름진 얼굴과 달리 아이같이 부드럽고 고운 손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피페라 에센스는 일고 쓰는 제품. 우뚝뚝한 향이 살짝 아쉽지만, 피부 속을 채워주는 느낌은 여실히 있다. 230ml 23만원. 문의 080-023-3333. *by 에디터 장미윤*

셀슈어 필 업지디 액티브라 피링 세럼 최근 인기 관저의 간저에 가까운 생생한 제품 후기를 듣고 사용 중인 세럼. 독자 개발한 주름 기능성 특화 성분을 함유, 존 존한 텍스처가 바르는 즉시 피부를 팽팽하게 감싸주는 듯한 느낌이다. 한 달 이상 꾸준히 사용하면 미세한 주름부터 굵은 주름까지 점차 회복시키는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50ml 15만원. 문의 080-456-2121. *by 에디터 이혜미*

볼리 1803 레 부지 피부에 밀로의 비나스 루브르 뮤지엄의 대표적 명화에 향기를 입힌 향초 시리즈 중 하나. 갈골, 재신, 그리고 맹미 향을 조합해 사랑과 미를 관장하는 신, 아프로디테비나스를 표현했다. 초콜 킷지 1시간 남짓 20명용 공간 전체에 은은한 과일과 부케 향이 퍼졌다. 이게 향초를 켜는 맛. 패키지가 고급스러워 선물용으로도 좋다. 300g 24만원. 문의 1544-5114. *by 에디터 장미윤*



SHOWROOM



에거 로콜트르 에트모스 클래식 에거 로콜트르가 고도의 정밀한 기술력이 돋보이는 에트모스 클래식을 소개한다. 대가만의 미세한 변화에 따라 에너지를 공급받는 에트모스 클래식은 태엽을 감지 않아도 영구적으로 작동한다. 투영 유리로 정교한 시계 부품과 허공에 뜬 듯한 고리 형태 밸런스 휠이 화성하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골드 캐비닛 안에 자리해 데카레이션 오브저버 활용에도 좋다. 갤러리아 부티크에서 판매한다. 문의 02-6905-3998

에르메스 슬림 데르메스 티타늄 새로운 에르메스 워치 슬림 데르메스 티타늄 모델은 기능적인 선과 재치 있는 디자인이 대비를 이룬다. 울트라-신 티타늄 케이스에 에르메스 오렌지 컬러를 다한 앤트라이트 다이얼을 매치하고 자체 제작 울트라-신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생동감 넘치면서도 목적인 한 느낌을 준다. 문의 02-542-6622

반클리프 아펠 빈티지 알함브라 팬던트 리미티드 에디션 반클리프 아펠이 블루 도자기와 옐로 골드를 조합한 빈티지 알함브라 팬던트를 선보인다. 이번 리미티드 에디션 출시를 위해 프랑스 장식 예술 분야에서 높은 명성을 얻고 있는 세브르 도자기 공방과 협업했다. 제품 뒷면 인그레이빙 서브스를 제공해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이나 기약하고 싶은 날짜를 새길 수 있다. 다가오는 연말, 더욱 특별한 선물을 할 수 있을 듯. 문의 00798-852-16123

피피제 익스트림 리레이드 피피제에서 18K 핑크 골드 워치, 익스트림 리레이드를 론칭한다. 각도와 빛의 차이에 따라 따뜻한 골드 빛이 표현된다. 유연하게 손목을 감싸는 브레이슬릿은 빛과 음영이 교차하며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뱀을 표현한 스케일 데코 인그레이빙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젤이 아우라진 것이 특징이다. 문의 02-540-2297

가르띠에 자트 앤 골루 브레이슬릿 단순하고 평범한 '꽃' 모티브를 독특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주얼리로 재탄생시킨 가르띠에의 자트 앤 골루 컬렉션. 그중 더블 브레이슬릿은 18K 핑크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과 동시에 강렬한 개성과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문의 1566-7277

볼가리 옥토파니모 세라믹 볼가리의 대표 남성 워치 컬렉션 옥토파니모가 하이테크 소재인 세라믹으로 진화했다. 케이스, 다이얼, 브레이슬릿, 버클 소재 모두 블랙 샌드블라스트 세라믹으로 제작해 세련되고 남성적인 매력이 느껴진다. 오메트릭 무브먼트를 장착한 버전과 매뉴얼 와인딩 스텝레톤 무브먼트를 장착한 버전, 27자로 선보인다. 문의 02-2056-0170

로로피아나 다큐멘터리 필름 캐시미어-비밀의 기원 지난 10월 19일 로로피아나는 상하이 MIFA 아트센터에서 영화감독이자 생애학자 뤼 지예와 함께 다큐멘터리 3부작 프로젝트 첫 작품인 '캐시미어-비밀의 기원' 영상을 공개했다. 필름에서는 자연과 동물, 사람이 공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최상의 부드러움을 지닌 캐시미어의 기원을 담은 풀 영상은 로로피아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546-0615

로에베 미니 라조 백 미니 백 트렌드에 맞춰 로에베가 이번 시즌 새로운 사이즈로 선보이는 미니 라조 백. '라조는 스페인어로 리본 장식을 뜻하며 로에베 시그니처 백 '게이트'의 리본 매듭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카키 그린 & 내추럴, 블랙, 뉘(Dune), 옐로, 버밀리언(Vermillion), 총 5가지 컬러로 구성했으며 토트백으로 연출하거나 스트랩을 연결해 크로스백으로 사용 가능하다. 문의 02-6905-3470

일렉산더 맥퀸 스토리 백 37지 2020 S/S 핸드백 컬렉션 중 첫 번째 컬렉션인 '스토리(The Story)' 백.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나누는 것에서 시작된 스토리 백은 깊이 조절 가능한 톨 핸들과 탈착 가능한 스트랩을 갖추어 핸드백, 숄더백, 크로스백, 클러처 등으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오카트 핑크, 라스트 레드, 블랙, 카키 등 다양한 색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2118-6171



JEWEL&WATCH



Zip Antique Ludo necklace
transformable into a bracelet,
rubies and diamonds.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현대 무역센터점
신세계 강남점 - 본점 - 센텀시티 - 대구점
갤러리아 EAST
롯데 에비뉴엘 월드타워

www.vancleefarpels.com - 00798-852-16123